

고유가 현상과 석유업계의 대응방안



정 현
SK(주) / 상무

지난 2월 11일 모스크바에서 G8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안보였다. G8 국가들은 고유가 현상과 그로 인한 일련의 에너지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였고, 석유 공급 안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G8 국가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높은 유가와 급격한 가격등락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고유가 문제가 세계경제의 화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2004년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90년대 저유가에 길들여진 세계경제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안정될 경우 유가가 하락할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2005년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43에서 최고 \$68로 2004년을 능가하

는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각 국가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적인 석유전문가들은 뒤늦게나마 최근의 고유가 현상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험이나 경기변동적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급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유가가 지속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을 맞이하여 각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다각도의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기업들은 발빠른 대처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있다. 지정학적, 문화적 차이로 갈등하던 국가들이 석유와 그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는 일도 더 이상 낮선 일로 비치지 않는다. 고유가로 촉발된 에너지 문제가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로 촉발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석유업계는 복잡한 숙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고유가 현상의 원인과 전

망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석유업계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70년대 석유파동에서 90년대 저유가 시대로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하기에 앞서 과거 유가 흐름을 되짚어보자. 과거 석유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은 현재의 석유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림 1] 역사적인 유가추이



자료 : BP
 주 : 1861-1944 US Average
 1945-1983 Arabian Light
 1984-2004 Brent

60년대 배럴당 2달러에 불과하던 원유가격은 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4배 이상 급등하였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 점령지를 침공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개입하게 되었고 아랍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산유량 감축 및 서방국가로의 수출중단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휘발유 배급제를 도입하고 주 3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였고, 안정적인 석유가격에 길들여져 있던 세계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다.

제2차 석유파동은 두 가지 사건에서 촉발되었다. OPEC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OPEC총회에서 원유의 수출가격 인상을 결의하였고, 석유 제 2 수출국인 이란은 이슬람혁명의 발발로 전국이 소요사태에 돌입하자 전면적인 석유수출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미 제1차 석유파동과 그 엄청난 파급력을 경험한 석유업계는 발빠르게 석유의 매 집에 나섰고 시장은 크게 교란되었다.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극도로 악화된 석유수급은 유가를 배럴당 \$36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1981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접어든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고유가에 힘입어 비 OPEC 국가들의 석유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요측면에서는 두 차례 석유위기로 인해 석유 수요의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석유 소비국들은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석유대체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고유가로 인한 경기후퇴도 석유소비 감소의 주 원인 중 하나였다. 비록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파괴된 석유생산 설비는 복구되지 않았지만 석유의 공급은 수요를 압도하였다.

1982년 미국의 리비아산 원유수입 거부는 유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리비아는 자국 원유의 수출을 위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OPEC은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생산 쿼터를 축소하였고 뒤를 이어 노르웨이 및 영국, 나이지리아 등도 판매가격 인하여 동참하였다. 그 결과 유가는 \$30 선을 다시 하향 돌파하게 되었고, 1985년 OPEC은 기준유가를 \$28로 하향조정하였다.

80년대 초반 국제유가의 하락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OPEC의 감산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OPEC은 심각한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만 했다. 계속되는 시장점유율 축소를 견디기 어려웠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확대를 선언하고 2백만 B/D에 머물던 생산량을 5백만 B/D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Net Back Pricing 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이는 원유 구매자들에게 일정량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가격산정 방식이다. OPEC의 공급량 확대는 국제유가의 하락을 가져왔고 86년 7월 \$10선이 무너지게 된다. 석유파동 당시 판매자에 의해 통제되던 석유시장이 전형적인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의 모습으로 전환된 것이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쿠웨이트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한 OPEC의 생산증대와 IEA의 전략비축유 방출로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라크의 수출재개와 쿠웨이트의 유전화재 진압 등으로 석유공급량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고 국제유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였다.

1996년 유럽과 미국의 한파, 이라크의 크루드 족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97년 말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제유가의 회복세는 더딘 모습을 유지하였다. 99년 아시아지역의 경기 회복, OPEC의 감산, 세계적인 한파와 낮은 석유재고로 국제유가는 강한 반등을 보였으나,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과 경기후퇴, 그리고 이어지는 9.11테러로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

국제유가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02년부터이다. OPEC의 생산량 감축, 베네주엘라의 정정불안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의 부각으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 발발과 태풍 이반과 카트리나의 발생으로 석유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석유파동 이후 사상 최고의 유가를 시현하기에 이른다. 과거 석유파동 이후 또 다시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이 형성된 것이다.

최근 고유가현상의 발생 원인

그럼 여기에서 2002년 이후 나타난 고유가 상황의 원인을 살펴보자. 필자는 고유가의 원인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90년대 이후 지속돼온 E&P 투자 부진
- 2) 아시아 신흥 소비국들의 부상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증가
- 3) 중동 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 심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 4) 상품시장의 발달로 인한 투기성 수요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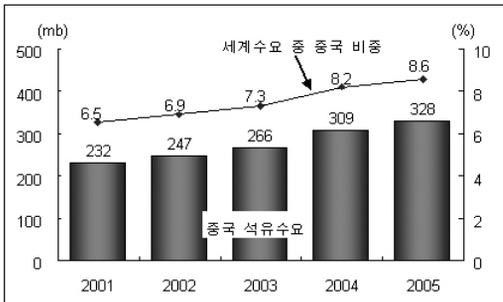
90년대 저유가는 E&P 투자를 크게 자극하지 못하였으며, 과거 7,80년대 나타났던 유가등락은 석유회사들의 투자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석유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이 필수적이다. 70년대의 유가급등과 80년대의 급락을 경험한 석유업계는 석유의 적정 가격과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웠고 이는 적극적인 E&P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90년대의 E&P 투자 부진은 2002년 이후 석유생산 시설의 가동률 상승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이 신흥소비국으로 급부상하였다.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와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인구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제규모에 머물던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을 계기로 하여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며 21세기 들어서도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GDP(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갖게 되었고 미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는 제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석유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970년 545 kB/D에 불과하던 중국의 석유수

요는 2002년 4,835 kB/D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도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이어졌는데 각각 9.9%와 1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석유수요증가는 세계 석유수요 증가량의 약 30%에 해당된다.

[그림 2] 중국의 석유수요



자료 : BP, SK경영경제연구소 추정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상승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의 종료로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는 낙관론에 불과했다. 이라크에서는 저항세력에 의한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아랍국가들의 반미감정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주요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이 크게 확대되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기술자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정도 부패와 사회갈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향후에 현실화될 수 있는 석유공급증단에 대한 소비국들의 두려움을 가중시켰고 석유 소비국들은 앞다투어 석유의 확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중동지역은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 지역으로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더욱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세계 석유생산의 40%를 차지하는 OPEC 회원국으로서 세

계 석유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상품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존 석유시장의 역학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생산자-소비자 시장에서 금융자본 유입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급등하는 원유가격을 목격한 투자자들은 석유가 꽤 쓸만한 투자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적극적인 매수에 나섬으로써 석유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했다. 더욱이 2002년부터 나타난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과 달러화 약세는 원유를 비롯한 현물투자 확대로 이어져 원유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석유파동과의 차이점은 고유가의 지속을 시사

공급능력에 대한 투자 지연, 중국의 폭발적인 석유수요 증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원유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등의 원인으로 촉발된 이번 고유가 상황은 분명 지난 1,2 차 석유파동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석유파동의 경우 국제 석유기업들은 적극적인 E&P 투자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번 고유가 상황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석유자원은 국유화되었으나 산유국들은 투자재원 부족을 핑계로 적극적인 공급량 확대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주요 메이저 기업들은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마땅히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배당과 M&A를 통한 현금활용에 그치고 있다. 추가적으로 개발 가능한 석유매장 지역이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E&P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설사 E&P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석유소비국들의 이들 지역에 대한 의존도 심

회는 향후 유가에 있어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고유가에 수반되었던 수요위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에 있어 서비스업 위주로의 개편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고 중국과 같은 개도국들은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2005년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증가율은 6%로 전년 14%에 비해 크게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격요인 보다 정부의 긴축정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2004년 세계 석유수요는 30%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 당시 전세계 석유 수요의 감소가 나타났던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그림 3] 70년대 미국의 에너지절약 운동



다시 말해, 과거 석유파동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반작용으로 석유가격의 안정이 수반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유가 상황에는 석유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요인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고유가가 과거 석유파동과는 달리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요인에 의한 것이며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또 한가지 중

요한 이유는 정유설비의 제약이다. 90년대 석유에 대한 수요부진은 E&P 뿐만 아니라 석유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전세계적인 정제설비 부족으로 현재 세계 정제설비의 평균가동률은 9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각 설비들의 정기보수 기간과 노후설비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대 생산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제설비의 부족은 E&P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원유에 맞는 정제설비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반대로 정유업체들은 원유공급의 한계에 대한 우려로 추가적인 설비 증설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부담을 갖게 되는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석유전문기관들도 석유가격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석유전문 연구기관인 FACTS는 2012년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70에 달하는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나리오 하에서는 2012년 \$75에서 2020년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7년 WTI유가가 배럴당 \$100을 넘어가는 이른바 Super Spike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했을 때, 고유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추세적인 현상이며 석유업계는 최근의 고유가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유가상승에 더욱 민감한 우리나라의 현실

과거 석유파동 시기에 우리나라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제 1 차 석유파동의 경우에는 낮은 산업화와 석유의존도, 그리고 중동 건설수주에 따른 외화획득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제 2 차

파동의 영향은 치명적이었다. 70년대 후반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석유의존도가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7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던 8% 대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 -5.7%로 후퇴했으며 한해 물가상승률은 28.8%에 달했다. 1979년 7월 서울시내 음식점 300여 곳이 기름값 인상 단행과 함께 문을 닫기도 했다.

[그림 4] 70년대 우리나라 석유절약 운동



유가에 취약한 경제상황은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석유제품의 소비량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500만대로 세계 10위에 해당하고 납사를 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5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내수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수출도 1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5번째로 큰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대한민국이 소비하는 원유는 8억2천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3%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하는 원유물량은 8만6천배럴(자급률 3.8%)에 불과하여 국제유가의 향방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마다 GDP 성장률이 0.2%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석유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지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석유업계는 고유가 상황하에서의 생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위를 돌보아야 하는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는 석유업계의 대응방안

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석유업계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자주원유의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지원 확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나라 석유업계는 높은 중동의존도로 인해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이고 향후 세계적인 석유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경우 원하는 만큼의 석유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E&P 투자를 통해 유망지역의 유전개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스전과 Unconventional Oil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 주요 석유기업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석유개발이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석유개발 관련 투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E&P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집행해온 SK의 경우에도 E&P 관련 자산은 8%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우 원유자금율(소비 원유대비 자국 보유 원유)이 70~80%에 이르고 있고, 중국은 60~65%, 독일은 20~25%의 자금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3.8%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8년까지 10%, 중장기적으로 30%의 원유자금률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E&P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E&P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세제 혜택이 뒷

받침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투자이행에 대한 국가적인 보증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산유국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자원외교도 필요하다. 이제까지 석유개발사업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 중 하나는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유가상승기에는 개발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활발한데 반해 유가가 하락하거나 안정기미를 보일 경우 투자열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했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해외석유 개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유자금률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석유회사의 대형화이다. 석유개발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투자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수반되기 때문에 석유회사의 대형화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대형석유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원유자금률은 대형화를 거치지 않은 일본, 독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한국은 대기업그룹에 대한 여신관리, 출자제한 등의 규제가 있어 석유회사의 대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자원개발에 있어서 만큼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유업체들은 적극적인 정제설비 투자에 나서야 한다. 세계 석유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석유제품의 경질화와 중질원유의 비중확대이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경질 제품과 중질 제품의 가격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제품의 경질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보급 확대와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의 강화이다.

2005년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92만대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나타냈다. 반면 경질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질원유의 공급은 한계에 달하였다. 경질원유의 주 공급처인 북미와 유럽의 생산

능력은 이미 하강 곡선에 접어들고 있으며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중동의 원유는 대부분이 중질원유이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고도화설비의 확충이다. 우리나라의 고도화설비 비율은 탈황 39.8%, 분해 11.2%에 불과한 실정으로 미국의 67.7%, 43.3%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탈황 92.4%, 분해 21.8%의 높은 고도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점차 경질화, 청정/고급화 되는 국내 석유수요의 충족과 경질제품 수출을 통한 수출수익 증대를 위해서 고도화설비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석유 비축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원유 비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직된 비축시스템의 운영으로 유가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구매, 활용이 제한받고 있다. 비축시스템의 개선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비축유 구입에 필요한 예산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유가 안정시 적극적으로 비축유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비축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비축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5] 2005년 SK가 취득한 美 北아베리아 광구



중장기적으로 미래에너지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할 수 없다. 고유가와 석유공급의 제한은 비단 우리나라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석유소비국이라면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이다. 현재 GTL(Gas To Liquid), CTL(Coal To Liquid) 등 광범위한 화석연료를 석유대신 사용하는 방안과 Oil Shale, Oil Sands 등 접근이 어려웠던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풍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Bio Fuel의 경우에는 유럽을 시발로 상용화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 믹스를 다양화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고유가를 계기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수소연료 자동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이들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상황이나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석유업계도 이러한 미래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

[그림 6] 교토의정서 발효



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2차 이행기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

이상 살펴본 고유가 대책은 사실 석유업계 종사자들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가상승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업계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석유산업의 특성상 시장변동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석유업계와 관련 부처, 그리고 관련산업 종사자들은 시장의 변동에 대한 사후대처 보다는 사전적인 대응이 더욱 효과적임을 염두에 두고 국내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슈워츠는 그의 저서 '미래를 읽는 기술'에서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이유에서 미래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인간이 미래를 부정하는 이유는 나쁜 소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석유업계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석유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판단력과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향후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 필자가 몸담고 있는 SK그룹에서 중요한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패기'의 실체이며 21세기 신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목일 것이다. 